

# 남아도는 호남 태양광발전 전기 수도권으로 가나

## 정부, 호남-수도권 연결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 추진 "전력망 투자 최적화하고 패러다임 전환할 정책 수립할 것"

이달부터 호남지역 태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가 시행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 개인 발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3월27일·30일자 9면)와 관련, 정부가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호남에서 생산돼 남아 도는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혁신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의 전력망 보강 계획인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중심으로 전력계통 관련 협안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수립 중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수요 증가, 발전력과 수요의 집중 지역 차이 등으로 인해 송·변전 설비 보강이 대폭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호남지역은 봄·가을처럼 전력 소비가 적은 기간에 남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는 신옥천

~세종(345kV)과 청양-신양정(345kV)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 보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해 해상을 활용해 호남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육상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에서 전남 지역(해남·진도)을 잇는 해상 송전선로가 있으나 소규모인 데다,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해상 광역 송전망은 전무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일 기상 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과 경남지역 '지속운전선상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력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됨에 따른 것으로, 북쪽 태양광 전력 생산량이 많은 것과 달리 연중 전기소비량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력거래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3GW 규모의 국내 태양광 설비 중 43.4%에 달하는 8.8GW(43.36%)가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전남 지역만 놓고 보면 출력제한 대상 태양광 발전소는 1356개소에 달해 자가용을 제외한 도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의 50.4%를 차지한다.

태양광 설비가 몰려 있는 호남에서 출력제한 조치가 시행되자 지역 발전 사업자들은 "수익 원색 대출반이 투자했는데 출력 제한으로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할 지경"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도는 이달 초 한국전력에 북쪽 태양광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산업부에 건

의했으나, 아직 별다른 보상안은 논의조차 없어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매년 출력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역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의 조속한 건설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지역과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을 서해안의 해상을 활용한 송전선로를 건설해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전력망 투자를 최적화하는 한편, 송·변전설비 건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을 조만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초거대 AI 경쟁력 키운다...올 3901억 투입

## 디지털플랫폼정부부 실행 계획 2027년까지 6만5천명 인재 양성 의료 분야 AI 등 세계 1위 가능

챗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올해에만 39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초거대 AI 활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전문(도메인) 분야 AI에서 세계 1위, 한국어 사용 초거대 AI 플랫폼 세계 1위를 목표로 비영어권 중심 세계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팅 자원을 주축으로 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GPT 시리즈 등 해외 생성형 AI에 맞서 전문 분야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의견서나 진료 소견서 작성 지원, 학술 연구에 참고문헌·통계 등 제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등 분야에서 응용 AI 서비스를 육성한다.

단순·반복 작업 중심이었던 데이터 라벨링(이름 붙이기) 중심의 AI 학습용 데이터 정제를 초거대 AI 학습용 핵심 데이터 구축으로 전환하기로 했

다. 이를 통해 양질의 대규모 텍스트 200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책 15만 권 분량에 해당한다.

AI 산업 발전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 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목표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 분야가 연결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과 기업 수요는 높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 정보 등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거지 답변도 곧잘 내놓는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돌파를 위해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AI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올 초 시동을 건 신경망처리장치(NPU) 팜 실증 사업과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처리 가속기 등의 컴퓨터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전문인력을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AI 대학원 등에서 석박사 등 정규과정 인재 6만5000명을 양성하고 일반 국민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

- 기술·산업혁신 인프라 확충**
  -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 200종 구축
  -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 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 적용
  -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등 기술 개발
  - K-클라우드 활용 위한 AI반도체 SW·데이터 가속처리 HW 개발
- 국민 편의성 확대**
  - 하나의 ID로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 알림·추천해주는 '핵심 알리미' 구현
  - 일상의 불편함, 사회 현안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 추진
- 민간 성장 플랫폼 육성**
  -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중점분야 대상 디지털트윈 구축 이후 전 분야로 확대
  - 사업자·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데이터 개방
  -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 10,000개 육성
  - 핵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등 활용할 수 있는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
- 개인정보 권리 강화**
  -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 도입

연합뉴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이중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챗GPT 출시 이후 초거대 AI가 만들어낸 무한한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다양한 초거대 AI 기반 특화 서비스를 출시해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고 충분히 잘해 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은행 대출금리 3%대로 '뚝'

## 시중은행 5곳 평균 3.640~5.801%...주담대 다시 '들쭉'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약 1년 반 전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통화 긴축 종료 기대로 시장(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돈 잔치' 비난에 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최근 상당수 부동산 대출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금리까지 눈에 띄게 떨어지자 주택담보대출도 뚜렷하게 살아나는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40~5.801% 수준이다.

약 한 달 반 전인 3월 3일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770%포인트 급락했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같은 기간 0.619%포인트(4.478%→3.859%) 떨어진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국내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추이를 보면, 14일 현재 수준(3.640%)은 2021년 9월 말(3.220%)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가장 낮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

진이 시작된 만큼, 대출금리가 사실상 통화 긴축 시작 지점으로 거의 되돌아간 셈이다.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연 4.680~6.060%)도 한 달 보름 사이 하단이 0.740%포인트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 하락(-0.411%포인트)과 관계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역시 현재 연 4.180~6.631%로 하단이 0.740%포인트 내려왔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5~6%에 이르던 은행 대출금리가 최근 크게 떨어지자, 위축됐던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잔액 800조8000억원)은 2월 말보다 2조3000억원 불었다.

앞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1월(-3000억원)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쳤지만, 한 달 새 다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이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 감소와 전셋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2월에 이어 3월에도 2조원 이상(2조3000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약 4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 중기부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재창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

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 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된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박기용 기자 pboxer@



## 개인맞춤 식단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

삼성전자는 17일부터 삼성닷컴 'e식품관'에서 갤럭시 워치로 측정된 체성분 결과 등에 맞춰 80여종의 건강식을 구매할 수 있는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소주 원료 주정값 또 오른다...9.8% 인상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값이 오른다. 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소주업체에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오는 18일부터 주정값을 평균 9.8% 인상한다.

지난해 10년 만에 주정값이 평균 7.8%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대한주정판매는 국내 주정회사가 생산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한다.

소주는 주정에 불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일각에서 원료 가격이 10%가량 오르면서 소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하이진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진진로는 지난 2월 참고자료를 통해 "당사는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6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6	22	23	24	38	3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770,311,875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79,976,313	55
3	5개 숫자 일치					1,625,535	2,706
4	4개 숫자 일치					50,000	139,518
5	3개 숫자 일치					5,000	2,401,618